

전남, 올 1.7兆 투자유치... 97社 3300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규모 '3270여 명'
수도권 등서 19개 기업 이전도
7개 산단 분양률 '7.4%' 늘어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군과 함께 맞춤형 투자유치를 추진한 결과 올 들어 4월 말까지 97개 기업과 총 1조 7143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 규모는 3270여 명이다. 지역별로는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진 나주에 38개, 영광에 12개, 담양 강진 영암에 각 6개, 해남에 5개, 장흥에 4개, 기타 시군에 20개 기업이 협약을 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분야가 34개 기업으로 가장 많고, 식품가공 23개, 철강기계 11개, 석유화학 5개, 전기차 분야 4개 기업 순이다.

투자협약 97개 기업 가운데 67%(68개)는 신규 투자이고, 나머지 33%(29개)는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온 기업이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6개 기업, 부산 등 부경권에서 4개 기업, 광주권에서 19개 기업이 이전해온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중점 관리하는 7개 산단의 평균 분양률도 47.1%로 지난해 말보다 7.4% 늘었다.

산단별로는 영광 대마산단 13.9%, 나

주 혁신산단 11.9%, 목포 대양산단 5.1%, 담양산단 2.4%, 장흥 바이오산단 2.2%, 강진산단 1.8%가 각각 늘었다. 목포 세라믹산단은 분양률 증감이 없다.

주요 투자협약 기업 가운데 광주 소재 화천기공은 영광 대마산단에 288억 원을 투자해 2020년 말까지 주물 제조공장을,

신안천사김은 강진 칠량농공단지에 158억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마른 김 생산 공장을 건립한다.

광주 소재 ㈜어스텍은 영광 대마산단에 300억 원을 투자해 2021년까지 이차전지 등 재생공장을, 경남 창원 소재 데콘은 대불국가산단에 300억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산업기계 제조공장을 완공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인 독일 바스프는 여수국가산단에 877억 원을 투자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산 공장을 완공, 지난달 11일 준공식을 가졌다.

신규 창출된 일자리 23명 모두 30대 이하 전남지역 청년들로 채용됐다.

프랑스 에어리퀴드도 여수국가산단에 투자를 확정했다.

2019년 말까지 1570억 원을 투자해 수소?일산화탄소 생산공장을 건립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인센티브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에너지 신산업, 전

기차 및 자동차 튜닝, 식품과 생물, 신재생 에너지, 첨단 세라믹, 드론산업 분야 등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단순 제조업 위주의 양적 기업 유치에서 게임 개발 등 젊은층이 선호하는 지식정보문화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질적으로 우수한 기업을 집중 유치해 취업을 위해 떠나는 청년들이 전남지역에 정착할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올해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목표는 10만 개로 이 가운데 300개 기업 유치를 통해 6000 명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역 산업단지 32개소 가운데 분양률이 낮은 7개 산단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시군과 함께 맞춤형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만개한 이팝나무

8일 전남 목포역 도로변에 심어진 30년생 이팝나무 꽃이 활짝 피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돌목서 ‘명량 이순신’ 리더십 배우자”

전남도 '이순신 리더십캠프' 인기
25개 학교 1018명 학생 참가 신청

전남도가 운영하는 '명량! 이순신 리더십 캠프'가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명량! 이순신 리더십 캠프'는 문화재청이 공모한 2018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의 일환인 테마문화재학당사업으로 명량대첩기념사업회가 사업자로 선정돼 이뤄지고 있다.

전남지역 학생들은 물론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명량 해전을 승리로 이끈 전라도민들의 호국·희생정신을 선양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남도가 지난 3월 전국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모집한 결과 총 25개 학교 1018명의 학생이 참가 신청을 했으며,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참여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기 67명, 충남 40명, 대구 34명, 경북 75명, 경남 115명, 광주 33명이 신청해 이 캠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명량! 이순신 리더십 캠프'는 조선 수군



'명량! 이순신 리더십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재건 44일의 기록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이순신 전문가 특강을 시작으로 울돌목 일원에 흩어져 있는 이순신 유적지와 문화유산 등을 해설사와 함께 답사하고 활쏘기, 문화배우기 등 다양한 충무공 체험을 할 수 있다.

지난달 14일 영암여자중학교를 시작으로 17~18일 목포여중, 27~28일 김해여중이 참여해왔다. 13척의 전선으로 수백 척의 일본 적선과 싸워 승리를 일군 기적의 현장인 울돌목에서 이순신 장군의 리더

십과 전라도 백성의 호국혼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유영관 전남도 관광과장은 "단편적인 해설이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스스로 체험하고 활동을 통해 지식을 습득토록 해 우리의 올바른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보성군 여자만 해양테마공원 1단계 이달 말 준공

전남 보성군은 여자만 해양테마공원 조성 1단계 사업이 5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여자만 해양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세계 랍사로 협약 보전습지로 등록된 벌교갯벌과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갈대군락지를 배경으로 추진된다.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90억원을 투자하며, 갈대탐방로 2870m, 에코센터 600㎡, 휴게쉼터 400㎡, 전망대, 갯벌 탐방데크 등 해양테마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지난해부터 3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1단계 사업은 갈대탐방로 670m와 탐방객 진입 편의를 위한 목교 1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막바지 정리 작업이 한창이다.

군은 갈대탐방로에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이용자의 안전과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2단계 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60억 원을 투자해 에코센터, 휴게쉼터, 갯벌탐방로 등을 설치해 지역문화와 관광, 생물다양성 등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환경·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해양테마공원이 조성되면 인근 중도방죽, 태백산맥테마파크와 연계한 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로 해양관광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벌교갯벌과 갈대군락지의 자연환경이 만들어주는 다양한 볼거리와 감동이 전해지는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 보성=문병환 기자 m8527188@

보성군 명인·명창 '굿GOOD 보러가자' 공연

보성군은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명인·명창들이 출연하는 명품공연 '2018 굿GOOD 보러가자'를 개최한다.

'2018 굿GOOD 보러가자'는 한국문화재단 주최, 문화재청·국립무형유산원이 후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전국 중소도시와 문화 소외지역에서 무형문화재 및 전통예술을 한 자리에서 보여주는 고품격 전통예술 공연이다.

올해 공모사업에 전국 22개 지역이 신청하여 보성군을 포함함 5곳이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번 공연은 소리꾼 오정해 사회로 최고의 명인과 젊은 예술인 등 다양한 출연진이 참여하여 지역의 스토리와 무형유산의 만남을 선보인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기타사항은 보성군문화예술회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 보성=문병환 기자

순천시

양귀비·대마 재배 단속

순천시는 불법 마약류 원천 차단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양귀비, 대마 재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순천시는 광주지방검찰청순천시청과 6개 시·군(순천, 여수, 광양, 고흥, 구례, 보성)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 대마 재배지 및 밀집작우려 지역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등 은폐 장소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수집해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위반행위를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전남 순천=김남중 기자